

광주·전남 결혼 10% 이상 증가...지자체 파격지원 효과?

4월 각각 448건·597건...전년 동기비 9.3%, 16.8% 급증 출생아 수 광주 4.9% 줄고 전남 5.1% 늘어...인구감소 지속

광주·전남 결혼한 커플 수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미뤄왔던 20·30대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출산장려정책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출산의 경우 대도시 광주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도농복합지역인 전남은 소폭 상승했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 모두 사망자와 타 지역 전출자가 출생아 및 전입자를 넘어지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전남은 혼인 건수가 각각 448건, 597건으로, 2023년 4월에 비해 각각 38건(9.3%), 86건(16.8%)이 증가했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했던 결혼식을 치르거나 신혼부부 특례 공급, 대출 등 주택 구입에 있어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서두른 커플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도시인 광주와 도농복합지역인 전남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의 경우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467명으로 전년 같은 달(491명) 대비 24명(4.9%)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전남은 656명으로 전년 같은 달(624명) 대비 32명(5.1%)이 증가했다. 강진군 등 22개 시·군과 전남도가 강력한 출산정책을 실시하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전남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광주와 전남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출생아보다는 사망자가,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의 지난 4월 사망자는 686명으로 전년 같은 달(675명) 대비 11명(1.6%), 전남은 1624명으로 전년 같은 달(1533명) 대비 91명(5.9%)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29개월째, 전남은 2021년 1월부터 41개월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광주·전남의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청년 이주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감소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적극 행정 실천 결의대회

상반기 우수공무원 시상도

광주지방국세청이 26일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적극 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이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도 다졌다.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납세자와 국민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의 성과를 냈으며, 국세청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국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 후 광주지방국세청 전 직원은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 회피 ▲각종 규제 및 납세자의 애로 해소 등을 다짐했다.

양동구 청장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고민하다 보면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항상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26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기업과 여성을, 여성의 경력을 잇다'...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여수 흥국체육관 1000여명 성황 152개 기업 참여 현장 채용 면접

'기업과 여성을, 여성의 경력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가 26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여수·광양시, 구례군에 위치

한 152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을 상대로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했고 박람회장 내 취업준비관, 채용관, 직업정보관, 창업관 외에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YS25 스토어'를 별도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YS25스토어에서는 여성들의 창업 아이디어와 시제품 등 창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한편, 시장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구직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여성창업기업의 생산품인 수제 초콜릿, 탄산음료, 지역 특산물 등 판매를 위

한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박람회에도 참석, 창업관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인 여수 출신 예비창업자는 "YS25스토어에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취·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빛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0.1P 하락

전국 소비심리는 2.5P 반등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비 심리는 반등했지만, 광주·전남지역 소비 심리는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93.5) 대비 0.1p 하락했다. 이달 전국 CCSI가 100.9로 전월보다 2.5p 오른 것과는 대비된다.

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당 조사 결과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지역 531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다.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평균치를 기준으로 놓고,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지역 CCSI는 지난 2022년 5월 102.3을 마지막으로 25개월째 100보다 낮은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CCSI 감소는 지역민들의 가계수입과 생활형편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CCSI 구성지수의 기여도를 보면 소비지출전망 항목에서 전월 대비 1p 상승했지만, 가계수입전망(-0.7p), 생활형편전망(-0.5p), 향후경기전망(-0.2p) 등 대부분 지표가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도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기업 1인당 110만원 지원

올해 현장 실습 400명으로 늘려

전남도가 대학생의 현장 실습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최대 4개월간 1인당 1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렸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들을 지역 우수 기업과 매칭해 현장에서 실습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하는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실습생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4개월)의 실습비와 멘토 직원 수

당 월 10만원(최대 4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대학생은 정부의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임금(206만 740원) 이상의 실습비를 받고 근무하며, 기업에서 지정하는 멘토를 통해 취업 전 일 경험을 쌓게 된다.

전남도는 올해 하계 계절학기부터 현장실습을 시행하며, 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를 통해 참여 기업체를 모집하고, 대학별로 희망 대학생과 기업을 매칭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세부사항은 전남테크

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 이민국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현장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전남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학습 병행을 통한 조기 취업 및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채용조건부 대학 교육 과정인 선취업 후진학 과정,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비롯해, 실무교육 중심의 산학 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8개 금융 공공기관과 지역인재양성 활성화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6일 "광주지역 8개 금융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역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하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G-JUMP'를 앞두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행사와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고, 업무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차상희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광주·전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이자 광주 소재 주요 금융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부, 글로벌 유니콘 기업 키운다

창업기업 65개 선정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유니콘 50개와 예비유니콘 1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유니콘은 250개, 예비유니콘은 111개가 각각 선정됐다. 유니콘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에서 혁신·성장성을 고려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시장개척자

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기술보증기금의 최대 50억원 특별보증을 신설해 유니콘이 성장자금을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유니콘 사업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과 글로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상위 30% 이내 기업에는 보증 한도를 30% 더 부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조달청, 국민생활안전 물자 품질관리 점검

함평 레미콘 생산 공장 현장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이 26일 전라남도 함평군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기업 도원레미콘(주)을 방문해 품질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레미콘 배합비율 등 원자재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생산 공장의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KS기준과 같은 현행 품질 관리 규정과 체계에 적합하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이 광주지방조달청의 설명이다.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레미콘은 안전관리 물자로 지정해 품질관리

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업체에서도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792.05 (+17.66)
코스닥	842.12 (+0.13)
금리(국고채 3년)	3.215 (+0.014)
환율(USD)	1388.70 (+1.20)